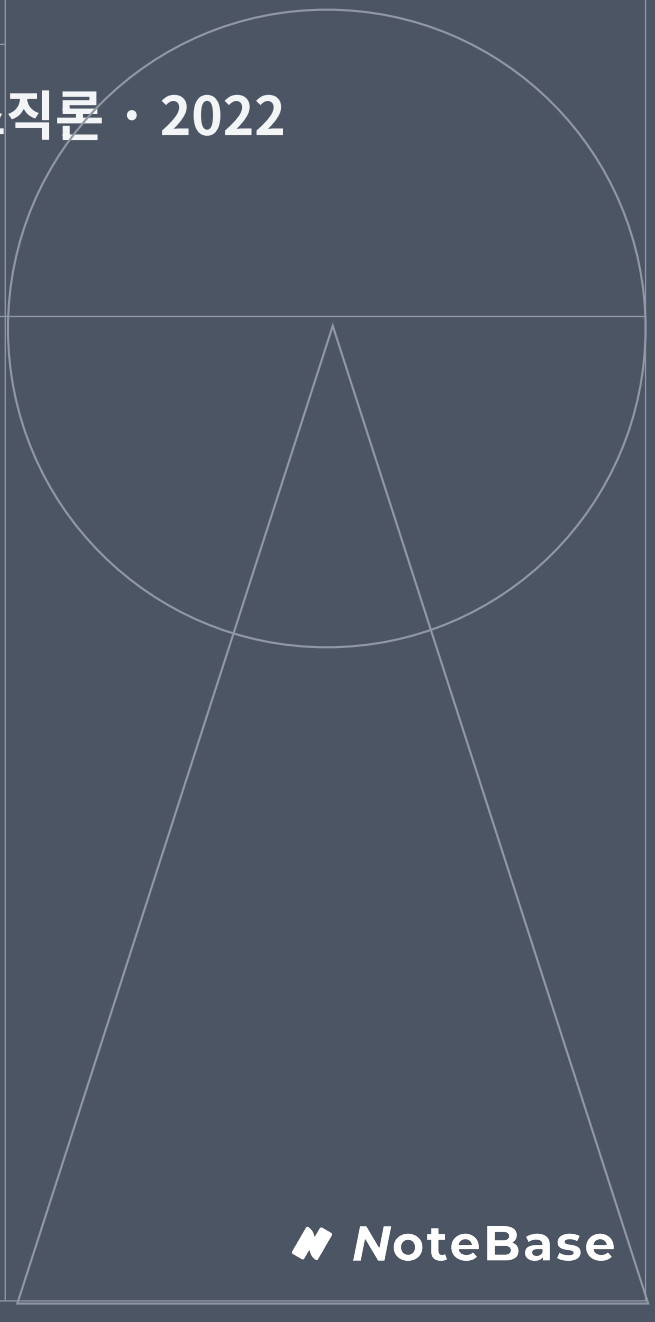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자료조직론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자료조직론 · 2022

공무원/군무원/9급 · 자료조직론 · 2022

1. 분류표 중에서 형식 또는 표준구분기호 '-08'의 의미가 같지 않은 것은?
① NDC ② KDC(6판)
③ UDC ④ DDC(23판)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여러 십진분류표에서 반복되는 -08 계열 기호의 의미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NDC의 -08과 KDC 제6판의 -08은 총서·전집·선집을 나타낸다. UDC의 형식구분 (08)도 집서·다주제 저작 등 집합 저작을 나타내므로 같은 의미군에 속한다. 반면 DDC 제23판의 표준세구분 T1--08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 NDC의 -08은 총서·전집·선집을 뜻하므로 KDC 제6판 및 UDC의 -08 계열과 의미가 같다. 틀린 판단은 '의미가 같지 않다'이며, 올바르게는 '집합 저작을 나타내는 같은 의미군이다'이다.
② X — KDC 제6판의 표준구분 -08은 총서·전집·선집을 뜻한다. 틀린 판단은 '의미가 같지 않다'이며, 올바르게는 'NDC와 UDC의 집합 저작 의미와 같다'이다.
③ X — UDC에서는 형식의 공통보조기호 (08)이 집서·다주제 저작 등 집합 저작을 나타낸다. 틀린 판단은 '의미가 같지 않다'이며, 올바르게는 'NDC와 KDC 제6판의 총서·전집·선집과 같은 의미군이다'이다.
④ O — DDC 제23판의 표준세구분 T1--08은 사람들의 집단을 뜻한다. 총서·전집·선집 또는 집합 저작을 뜻하는 나머지 세 분류표의 -08 계열과 의미가 다르므로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모두 08이라는 숫자를 사용한다는 조기성만 보고 의미까지 같다고 판단하기 쉽다. 특히 DDC 제23판의 T1--08은 저작의 형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08을 보면 먼저 '집합 저작'과 '사람들의 집단'의 두 의미로 나눈다. NDC·KDC·UDC는 집합 저작 쪽이고, DDC 제23판은 사람들의 집단 쪽이다.

암기 포인트

N·K·U의 08은 모은 저작, DDC 23의 08은 모인 사람이다.

NoteBase

2. KDC 제6판을 활용하여 분류할 때, '국어공통 구분표' 적용과 가장 거리가 먼 분류기호는?
① 040 ② 050
③ 070 ④ 08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KDC 제6판에서 총류의 분류기호가 국어구분에 따라 전개되는지, 지역구분에 따라 전개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어구분은 자료의 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중국어·일본어·영어 등으로 세분하는 방식이다. 040, 050, 080은 국어구분과 관련되지만, 070은 신문·언론·저널리즘을 지역별로 전개하므로 국어구분 적용과 가장 거리가 멀다.

선지별 해설

① X — 040은 강연집·수필집·연설문집으로, 자료의 언어에 따른 국어구분이 적용되는 항목이다. '국어구분 적용과 가장 거리가 먼 기호'로 고치면 070이다.
② X — 050은 일반연속간행물로, 언어별 세분에 국어구분을 활용하는 항목이다. '국어구분 적용과 가장 거리가 먼 기호'로 고치면 070이다.
③ O — 070은 신문·언론·저널리즘으로, 언어가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세분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국어구분 적용과 가장 거리가 멀다.
④ X — 080은 일반전집·총서로, 언어에 따른 국어구분과 관련되는 항목이다. '국어구분 적용과 가장 거리가 먼 기호'로 고치면 070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신문은 특정 언어로 쓰이므로 070도 국어구분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분류기호의 전개 기준을 보아야 하며, 070의 핵심 기준은 언어가 아니라 지역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총류의 형식별 항목 가운데 040·050·080은 언어별 전개와 연결하고, 070 신문·언론·저널리즘은 지역별 전개와 연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040·050·080은 국어구분, 070은 지역구분이다.

NoteBase

3. DDC 23판을 사용하여 분류할 때, 보조표 T6의 적용과 가장 거리가 먼 자료는?
① 속담(398.9)
② 중등학교 외국어교육(372.65)
③ 언어별 수사법(808.04)
④ 민속 음악(781.62)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보조표 T6(언어)의 기호를 직접 또는 언어별 세분에 활용하는 항목과, 다른 보조표를 활용하는 항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T6는 개별 언어와 어족을 나타내는 언어 보조표이며, 본표에 부가 지시가 있을 때 적용한다.
속담·외국어교육·언어별 수사법은 언어에 따라 세분하므로 T6와 밀접하다. 반면 민속 음악은 언어가 아니라 특정 민족·국가 집단에 따라 세분하므로 T5(민족·국가 집단)를 적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속담 398.9에는 특정 언어의 속담을 나타내기 위해 T6의 언어기호를 부가한다. 따라서 ‘T6의 적용과 거리가 먼 자료’가 아니라 ‘T6를 직접 적용하는 자료’로 고쳐야 한다.
② X — 외국어교육 372.65는 교육 대상 언어에 따라 세분할 때 T6의 언어 구분과 연결된다. 따라서 ‘T6의 적용과 거리가 먼 자료’가 아니라 ‘T6의 언어기호를 활용하는 자료’로 고쳐야 한다.
③ X — 언어별 수사법 808.04에는 특정 언어를 나타내기 위해 T6의 언어기호를 부가한다. 따라서 ‘T6의 적용과 거리가 먼 자료’가 아니라 ‘T6를 직접 적용하는 자료’로 고쳐야 한다.
④ O — 민속 음악 781.62는 특정 민족·국가 집단별로 세분할 때 T6가 아니라 T5의 기호를 부가한다. 네 선지 중 T6의 적용과 가장 거리가 멀다.

오답 포인트

‘민속’이라는 말 때문에 민속 음악도 민족의 언어를 나타내는 T6를 쓸 것처럼 보이는 점이 함정이다. 781.62의 세분 기준은 언어가 아니라 민족·국가 집단이므로 T5가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료의 주제가 특정 언어 자체나 언어별 표현·교육이면 T6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정 민족·국가 집단을 구분하는 항목이면 T5를 먼저 떠올리고, 본표의 부가 지시를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속담·외국어교육·언어별 수사법은 T6, 민속 음악은 T5이다.

NoteBase

4. DDC 23판의 본표 내 주제간 조기성을 연결한 것이다. 밑줄 친 기호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① 952 - 915.2
② 445 - 845
③ 495.1 - 079.951
④ 495.7 - 059.957

정답 2, 3번

출제 포인트

DDC의 조기성은 서로 다른 주제·분야에서도 같은 숫자가 같은 개념을 나타내도록 기호를 반복하는 성질이다. 이 문항은 겉모양이 비슷한 숫자가 실제로도 같은 의미를 갖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주제간 조기성: 서로 다른 주제의 분류기호에서 동일한 숫자 배열이 동일한 지역·언어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성질이다.
지역 조기성에서는 일본처럼 같은 지역을 나타내는 숫자가 역사와 지리 등에서 반복된다. 언어 조기성에서는 한국어처럼 같은 언어를 나타내는 숫자가 언어류와 해당 언어로 된 간행물의 기호에 반복된다. 다만 숫자 모양이 비슷해도 한쪽은 문법·문학형식, 다른 쪽은 언어·지역을 뜻하면 조기성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 952는 일본의 역사, 915.2는 일본의 지리·여행을 나타내며, 두 기호에서 일본이라는 지역의 의미가 공통된다. 틀린 판단은 '의미가 서로 다르다'이며, 올바르게는 '분야는 역사와 지리로 다르지만 일본을 나타내는 지역 의미는 같다'이다.
② O — 445는 프랑스어 문법이고 845는 프랑스 문학의 연설이다. 끝자리 5가 445에서는 문법을, 845에서는 연설이라는 문학형식을 뜻하므로 밑줄 친 기호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
③ O — 495.1은 중국어라는 언어를 나타내지만 079.951의 951은 중국이라는 지역을 나타낸다. 중국어와 중국 지역은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이므로 같은 의미의 조기성으로 볼 수 없다.
④ X — 495.7은 한국어를 나타내고 059.957은 한국어로 된 일반 연속간행물을 나타내므로, 957은 한국어라는 동일한 언어 의미로 연결된다. 틀린 판단은 '의미가 서로 다르다'이며, 올바르게는 '자료의 형식은 다르지만 한국어라는 언어 의미는 같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두 기호가 모두 프랑스와 관련된다는 점만 보면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핵심인 끝자리 5는 각각 문법과 연설을 뜻한다. ③도 중국어와 중국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기 쉽지만, 언어와 지역은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분류기호의 전체 주제를 먼저 풀어 쓴 뒤, 반복된 숫자가 담당하는 의미를 비교한다. 반복 부분이 같은 지역 또는 같은 언어를 뜻하면 조기성이 있고, 문법과 문학형식 또는 언어와 지역처럼 역할이 달라지면 의미가 다른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952·915.2는 일본, 495.7·059.957은 한국어로 연결된다. 445·845의 5는 문법과 연설, 495.1·079.951은 중국어와 중국 지역으로 갈린다.

NoteBase

5. 다음은 DDC 23판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하여 분류한 자료 중에서 분류기호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025.46	Classification of specific disciplines and subjects
.460 01 - 469 99	Specific subjects
	Add to base number 025.46 notation 001-009

① Classification for military science - 025.4636
② Classification of architecture - 025.4672
③ Classification for biology - 025.4657
④ Classification of agriculture - 025.4663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DDC의 특정 학문·주제 분류기호를 025.46에 합성할 때, 해당 주제의 DDC 기호에서 자릿값을 위한 끝자리 0을 제외하고 올바르게 덧붙일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025.46은 특정 학문 및 주제의 분류에 관한 기본기호이다. 여기에 해당 주제의 DDC 기호를 합성한다. DDC 기호의 끝자리 0이 단지 자릿값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지만, 유효한 숫자는 임의로 반올림하거나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720은 72, 570은 57, 630은 63으로 합성하지만 355는 그대로 355를 합성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군사학의 DDC 기호는 355이므로 025.46에 355를 합성한 025.46355가 되어야 한다. 선지의 025.4636은 355를 36으로 바꾼 기호이므로 부적절하다. 올바르게는 'Classification for military science - 025.46355'이다.
② O — 건축학의 DDC 기호 720에서 자릿값을 위한 끝자리 0을 제외한 72를 025.46에 합성하면 025.4672가 된다.
③ O — 생물학의 DDC 기호 570에서 자릿값을 위한 끝자리 0을 제외한 57을 합성하면 025.4657이 된다.
④ O — 농업의 DDC 기호 630에서 자릿값을 위한 끝자리 0을 제외한 63을 합성하면 025.4663이 된다.

오답 포인트

①의 355를 36으로 처리하는 것이 함정이다. 720·570·630처럼 끝자리 0은 생략할 수 있지만, 355의 마지막 5는 유효한 숫자이므로 생략하거나 반올림할 수 없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주제의 본래 DDC 기호를 확인하고, 끝자리 0이 자릿값 표시에 불과한 경우에만 그 0을 제외한 뒤 025.46에 그대로 이어 붙인다. 끝자리가 0이 아닌 기호는 모든 유효 숫자를 보존한다.

암기 포인트

025.46 + 주제기호: 끝자리 0은 생략할 수 있지만 유효 숫자는 그대로 보존한다. 군사학 355는 025.46355이다.

NoteBase

6. 다음은 KDC 제6판의 일부이다. 이를 이용하여 '홋카이도방언' 자료를 분류한 기호로 가장 옳은 것은?

710	한국어
730	일본어
738	방언(사투리)
.1-.8	각 지방의 방언
	지역구분표 - 131-138과 같이 세분한다.
지역구분표	-13 일본
	-131 홋카이도
	-132 혼슈

① 738.1
② 738.1131
③ 738.131
④ 738.31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KDC 본표의 738.1-.8과 지역구분표 -131~-138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방언의 분류기호를 조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738은 한국어의 방언(사투리)을 나타낸다. 본표의 지시에서 738.1-.8은 지역구분표 -131~-138과 대응하므로, 지역구분표의 -131 홋카이도는 끝자리 1에 대응하여 738.1이 된다. 지역구분표 기호 전체를 738 뒤에 그대로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738.1은 지역구분표의 -131 홋카이도와 본표의 738.1이 대응하므로 홋카이도방언의 올바른 분류기호이다.
② X — 738.1131은 738.1 뒤에 지역구분표 기호 131을 다시 붙여 중복 조합한 점이 틀리다. 올바른 기호는 738.1이다.
③ X — 738.131은 지역구분표의 131을 738 뒤에 그대로 소수점 이하 기호로 붙인 점이 틀리다. -131은 738.1에 대응하므로 올바른 기호는 738.1이다.
④ X — 738.31은 -131에서 31을 취해 붙인 점이 틀리다. 738.1-.8은 -131~-138의 끝자리 1~8과 대응하므로 홋카이도는 738.1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지역구분표의 -131을 본표 738에 통째로 덧붙인다고 생각하면 ②나 ③을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의 지시는 738.1-.8과 -131~-138을 서로 대응시키라는 뜻이며, 홋카이도의 대응 숫자는 1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본표에 이미 738.1-.8처럼 분류 범위가 제시되고 보조표의 특정 범위와 같이 세분한다는 지시가 있으면 두 범위의 대응 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131~-138에서는 마지막 숫자 1~8을 738.1~738.8에 각각 대응시킨다.

암기 포인트

-131 홋카이도는 738.1, 즉 지역구분표의 끝자리와 738의 소수점 이하 숫자가 대응한다.

NoteBase

7. 다음은 KDC 제6판의 일부이다. 이를 이용하여 분류한 기호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70	교육학
	370.1- .9는 표준구분에 따라 세분한다.
.9	교육사, 각국 교육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373	학습지도, 교육방법
.1	학습, 지도, 조직
.2	교수법
.7	학습평가, 교육평가
.78	평가문제집
374	교육과정
	001-999 같이 주제구분한다.
	별법: 도서관에 따라 각과 교육 다음에'0'을 부가한 후 373.1-.78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지역구분표	-11 대한민국(대한민국) Korea

① 한국교육사 - 370.911
② 음악교육과정 평가 - 374.67037
③ 수학교육과정 - 374.41
④ (계간) 교육학회지 - 370.5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KDC 제6판 교육학 부분에서 표준구분·지역구분표·주제구분을 결합하고, 각과 교육의 평가 세목을 전개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370 교육학: 370.1-.9는 표준구분에 따라 세분하며, 370.9 교육사·각국 교육은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374 교육과정: 001-999로 주제구분한다. 각과 교육을 더 세분할 때에는 그 번호 뒤에 0을 붙인 다음 373.1-.78의 해당 세목을 적용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한국교육사는 370.9 교육사·각국 교육에 지역구분표의 대한민국 -11을 결합하므로 370.911이 적절하다.
② X — 틀린 부분은 음악교육과정 평가를 374.67037로 분류한 것이다. 음악은 374에 주제번호 670을 적용하여 374.67이 되고, 평가 세목을 전개할 때에는 0을 붙인 뒤 373.7의 세목 7을 적용하므로 올바른 기호는 374.6707이다.
③ O — 수학은 주제번호 410을 적용하므로 수학교육과정은 374.41이 적절하다.
④ O — 교육학의 정기간행물은 370에 표준구분 05를 적용한 370.5가 적절하며, 계간이라는 발행 주기는 이 기호를 바꾸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②에서 373.7 전체를 붙이는 것으로 오해하여 037을 덧붙이기 쉽다. 지시문은 각과 교육 번호 뒤에 0을 먼저 붙이고, 373.1-.78에서 필요한 세목만 이어 붙이는 방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본 분류번호를 정한 뒤 표의 지시문을 확인한다. 370.9는 지역구분표를 결합하고, 374는 과목의 주제번호를 결합하며, 각과 교육의 교수법·평가 등을 더 나눌 때에는 0과 373의 해당 세목을 이어 붙인다.

암기 포인트

교육사·각국 교육은 370.9+지역, 교육과정은 374+과목, 각과 교육의 평가는 과목번호+0+7이다.

NoteBase

8. 다음은 KORMARC형식(통합서지용, 2014)을 적용한 서지데이터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표시기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245	▾a뇌 과학의 모든 역사 ▾h[전자자료] / ▾d매튜 코브 지음 ; ▾e 이한나 옮김
(㉠)	▾a같은 내용의 책자형도 있음.
(㉡)	▾a코브, 매튜 ▾t뇌 과학의 모든 역사 ▾d서울 : 심심, 2021

① 530 - 772
② 534 - 776
③ 530 - 776
④ 534 - 777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자자료 레코드에서 다른 물리적 형태의 자료가 존재함을 알리는 주기 필드와 그 자료를 식별하여 연결하는 부출 필드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530 필드는 이용 가능한 다른 형태의 자료가 있음을 설명하는 주기이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책자형도 있음'과 같은 문장을 기록한다.
534 필드는 현재 기술 대상의 원본이 된 자료의 원본판 사항을 주기하는 필드이다. 단순히 다른 형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는 필드가 아니다.
776 필드는 동일한 내용이 다른 물리적 형태로 발행된 자료를 식별하는 기타 형태 부출이다.
저자·표제·발행사항 등을 제시하여 해당 자료로 연결한다.
772 필드는 모체 레코드 부출, 777 필드는 동시 발행 자료 부출이므로 이 사례와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530이 맞지만, (ㄴ)을 772로 본 부분이 틀리다. 772는 모체 레코드 부출이며, 책자형이라는 다른 물리적 형태의 자료를 연결하는 (ㄴ)은 776이다. 올바른 연결은 530-776이다.
② X — (ㄴ)은 776이 맞지만, (ㄱ)을 534로 본 부분이 틀리다. 534는 원본판 사항 주기이고, '같은 내용의 책자형도 있음'은 이용 가능한 다른 형태를 알리는 530이다. 올바른 연결은 530-776이다.
③ O — (ㄱ)의 '같은 내용의 책자형도 있음'은 이용 가능한 다른 형태의 자료를 알리는 530이고, (ㄴ)은 그 책자형 자료의 저자·표제·발행사항을 제시하는 기타 형태 부출이므로 776이다.
④ X — (ㄱ)의 534와 (ㄴ)의 777이 모두 틀리다. 534는 원본판 사항 주기이고 777은 동시 발행 자료 부출이다. 이 사례에서는 각각 530과 776을 사용하므로 올바른 연결은 530-776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책자형’이라는 표현만 보고 원본판을 뜻하는 534로 판단하거나, 관련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772·777을 고르면 틀린다. (ㄱ)은 다른 형태가 존재한다는 주기이고, (ㄴ)은 그 다른 형태 자료를 식별하는 부출이라는 기능 차이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다른 형태도 있음’처럼 존재 여부를 문장으로 설명하면 530, 그 다른 형태의 저자·표제·발행사항을 제시하여 레코드를 연결하면 776으로 판단한다. 원본판 자체의 사항을 적을 때만 534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다른 형태 있음은 530, 다른 형태로 연결은 776이다.

NoteBase

9. FRBR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지레코드의 요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참조모형이다.
ㄴ. 서지정보를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목록규칙이다.
ㄷ. 데이터요소의 구조방법이나 표현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ISBD라 할 수 있다
ㄹ. 서지레코드의 요건과 이용자의 요구 해결을 위한 방법을 개체-관계 모형으로 제시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FRBR이 목록규칙이나 기술 표준이 아니라, 서지레코드의 기능적 요건을 개체·속성·관계와 이용자 과업으로 구조화한 개념모형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FRBR: 서지 세계의 개체, 속성, 관계를 바탕으로 서지레코드의 기능적 요건을 설명하는 개체-관계 개념모형이다. 이용자의 탐색, 식별, 선정, 입수 과업과 서지데이터를 연결한다.
목록규칙: 실제 목록 작성에서 자료를 어떤 원칙과 규정에 따라 기술하고 접근점을 정할지를 제시한다.
ISBD: 서지기술의 요소, 배열 순서, 구두점 등 기술 형식을 표준화한 국제표준서지기술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맞지만 ㄴ과 ㄷ이 틀렸으므로 옳은 문장의 조합이 아니다. ㄴ의 '목록규칙'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FRBR은 서지정보의 기술 방법을 지시하는 규칙이 아니라 서지레코드의 기능적 요건을 설명하는 개념모형이다. ㄷ의 'ISBD라 할 수 있다'도 틀리며, 올바르게는 데이터요소의 구조방법이나 표현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ISBD의 영역이고 FRBR 자체를 ISBD라고 할 수 없다.
② O — ㄱ과 ㄹ이 모두 맞다. FRBR은 서지레코드 요건에 관한 공통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 참조모형이며, 이용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능적 요건을 개체-관계 모형으로 제시한다.
③ X — ㄹ은 맞지만 ㄴ이 틀렸으므로 옳은 문장의 조합이 아니다. ㄴ의 '서지정보를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목록규칙'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FRBR은 기술 절차를 정한 목록규칙이 아니라 서지레코드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구조화한 개념모형이다.
④ X — ㄹ은 맞지만 ㄴ과 ㄷ이 틀렸으므로 옳은 문장의 조합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ㄴ은 목록규칙이 아니라 FRBR의 기능적 개념모형에 관한 설명이어야 하고, ㄷ은 FRBR과 ISBD를 동일시하지 않고 FRBR은 개념모형, ISBD는 서지기술 표준이라고 구분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FRBR, 목록규칙, ISBD가 모두 서지조직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기능을 뒤섞기 쉽다. 특히 ㄴ의 '어떻게 기술'과 ㄷ의 '표현방식'은 실제 기술 규칙·표준의 신호이고, FRBR의 핵심은 서지레코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기능적 개념모형이라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체·속성·관계, 이용자 과업, 기능적 요건'이면 FRBR로 판단한다. '기술요소·배열·구두점'이면 ISBD, 실제 목록 작성의 규정이면 목록규칙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FRBR은 기능적 개념모형, ISBD는 서지기술 표준, 목록규칙은 실제 목록 작성 규정이다.

NoteBase

10. 한국목록규칙 제4판의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의 기술요목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표제관련정보	ㄴ. 자료유형
ㄷ. 권차, 회차, 연차표시	ㄹ. 책임표시
ㅁ. 본표제, 별표제	ㅂ. 대등표제

① ㅁ - ㅂ - ㄱ - ㄴ - ㄷ - ㄹ
② ㅁ - ㄴ - ㅂ - ㄱ - ㄷ - ㄹ
③ ㅁ - ㄴ - ㅂ - ㄱ - ㄹ - ㄷ
④ ㅁ - ㅂ - ㄱ - ㄷ - ㄹ - ㄴ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의 기술요목을 정해진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ㅁ. 본표제·별표제 → ㄴ. 자료유형 → ㅂ. 대등표제 → ㄱ. 표제관련정보 → ㄷ. 권차·회차·연차표시 → ㄹ. 책임표시

본표제와 별표제를 먼저 적고, 자료유형을 그 바로 뒤에 둔 다음 대등표제와 표제관련정보를 잇는다. 이후 권차·회차·연차표시를 적고 책임표시로 마무리한다. 이 문항은 각 요소의 의미보다 규칙이 정한 기술 위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ㅁ-ㅂ-ㄱ 다음에 ㄴ을 둔 부분이 틀렸다. 자료유형은 대등표제와 표제관련정보보다 앞에 와야 한다. 올바르게는 ㅁ-ㄴ-ㅂ-ㄱ-ㄷ-ㄹ이다.

② O — 본표제·별표제, 자료유형, 대등표제, 표제관련정보, 권차·회차·연차표시, 책임표시의 순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③ X — 마지막의 ㄹ-ㄷ 순서가 틀렸다. 권차·회차·연차표시는 책임표시보다 먼저 기술한다. 올바르게는 ㅁ-ㄴ-ㅂ-ㄱ-ㄷ-ㄹ이다.

④ X — 자료유형 ㄴ을 맨 끝에 둔 부분이 틀렸다. 자료유형은 본표제·별표제 바로 뒤에 놓이며, 대등표제와 표제관련정보보다 앞선다. 올바르게는 ㅁ-ㄴ-ㅂ-ㄱ-ㄷ-ㄹ이다.

오답 포인트

자료유형을 표제 관련 요소들을 모두 적은 뒤에 두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규칙에서는 자료유형이 본표제·별표제 직후에 오며, 끝부분에서는 권차·회차·연차표시가 책임표시보다 앞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본표제·별표제 → 자료유형'을 고정하고, 가운데의 '대등표제 → 표제관련정보', 끝의 '권차·회차·연차표시 → 책임표시'를 차례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본·자·대·관·권·책: 본표제, 자료유형, 대등표제, 관련정보, 권차표시, 책임표시의 순서이다.

NoteBase

11. 주어진 자료를 대상으로 AACR2를 적용하여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을 제시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Little Women / Greta Gerwig 각본 ; Louisa May Alcott 원작. -- New York: Book, 2018

① 기본표목-Little Women ;
부출표목-Gerwig, Greta
② 기본표목-Alcott, Louisa May ;
부출표목-Gerwig, Greta
③ 기본표목-Gerwig, Greta ;
부출표목-Alcott, Louisa May
④ 기본표목-Little Women,
부출표목-Gerwig, Greta ;
부출표목-Alcott, Louisa May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AACR2에서 각색 저작의 주된 책임자와 원작자를 구분하여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을 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핵심 개념

기본표목은 자료의 주된 지적·예술적 책임자를 나타내는 대표 접근점이고, 부출표목은 기본표목 이외의 중요한 책임자를 위한 추가 접근점이다. 이 자료에서는 각본을 쓴 Greta Gerwig가 주된 책임자이므로 기본표목은 Gerwig, Greta이고, 원작자인 Louisa May Alcott는 부출표목 Alcott, Louisa May로 제시한다. Little Women은 표제이므로 이 문항에서 인명 기본표목으로 삼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기본표목-Little Women'과 '부출표목-Gerwig, Greta'가 잘못되었다. Little Women은 표제이고 Greta Gerwig는 각본을 맡은 주된 책임자이므로, 올바르게는 기본표목-Gerwig, Greta, 부출표목-Alcott, Louisa May이다.
② X — '기본표목-Alcott, Louisa May'가 잘못되었다. Alcott는 원작자이지 이 자료의 각본 책임자가 아니므로 부출표목이 되며, 올바르게는 기본표목-Gerwig, Greta, 부출표목-Alcott, Louisa May이다.
③ O — 각본을 쓴 Greta Gerwig를 기본표목으로 하고 원작자인 Louisa May Alcott를 부출표목으로 한 것이 적절하다.
④ X — '기본표목-Little Women'과 '부출표목-Gerwig, Greta'가 잘못되었다. Greta Gerwig는 부출표목이 아니라 기본표목으로 제시하고, Louisa May Alcott만 원작자 부출표목으로 제시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표제가 맨 앞에 있다는 이유로 Little Women을 기본표목으로 고르거나, 널리 알려진 원작자 Alcott를 주된 책임자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책임표시에서 '각본'과 '원작'의 역할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책임표시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구성한 주된 책임자를 먼저 찾아 기본표목으로 정하고, 원작자 등 관련 책임자는 부출표목으로 돌린다. 인명 표목은 '성, 이름'의 도치형으로 제시한다.

암기 포인트

각본 책임자 Gerwig는 기본표목, 원작자 Alcott는 부출표목이다.

NoteBase

12. 표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등록표제(key title)는 연속간행물의 개별화를 위해 국제연속간행물시스템에서 부여한 표제를 말한다.
② 난외표제(running title)는 도서와 학술지의 각 면의 상단이나 하단의 난외에 반복되어 기술되는 표제나 간략표제를 말한다.
③ 개별표제(distinctive title)는 매권 또는 매호마다 나타나는 고유표제 이외의 특별한 표제를 말하며, 주로 연속간행물, 연감, 회의록 등에서 발견된다.
④ 종합표제(collective title)는 한 저작이 복수의 상이한 표제로 알려져 있을 경우, 이를 목록상에서 한 자리에 집중하기 위해 특별히 선정된 표제를 말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등록표제·난외표제·개별표제·종합표제의 정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등록표제(key title): 연속간행물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국제연속간행물시스템에서 부여하는 표제이다.
난외표제(running title): 도서나 학술지의 각 면 위쪽이나 아래쪽 난외에 반복해서 표시되는 표제 또는 그 간략형이다.
개별표제(distinctive title): 공통표제와 함께 매권·매호마다 달리 나타나는 그 권호 고유의 특별한 표제이다.
종합표제(collective title): 여러 저작이나 내용을 하나의 자료에 함께 수록할 때 그 전체를 포괄하여 나타내는 표제이다.
종합표제는 여러 내용을 하나로 포괄하고, 통일표제는 서로 다른 표제로 알려진 동일 저작을 목록에서 한곳에 모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등록표제는 연속간행물을 개별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국제연속간행물시스템에서 부여하는 고유한 표제이므로 적절하다.
② O — 난외표제는 도서나 학술지의 각 면 상단 또는 하단 난외에 반복하여 표시되는 표제나 간략표제를 뜻하므로 적절하다.
③ O — 개별표제는 공통표제 외에 매권 또는 매호마다 별도로 나타나는 고유표제이며, 연속간행물·연감·회의록 등에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종합표제'이다. 선지의 '한 저작이 복수의 상이한 표제로 알려진 경우 목록상 한 자리에 집중하기 위해 특별히 선정한 표제'는 통일표제(uniform title)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종합표제는 여러 저작이나 내용을 함께 수록한 자료 전체를 포괄하는 표제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여러 저작을 하나의 표제로 포괄한다'는 종합표제의 기능과 '동일 저작의 여러 표제형을 한곳에 집중한다'는 통일표제의 기능을 바꾸어 제시하였다. '복수의 상이한 표제로 알려진 한 저작'과 '목록상 한 자리로 집중'이 통일표제를 가리키는 결정적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제가 무엇을 하나로 묶는지 확인한다. 여러 저작이나 내용을 하나의 자료 안에서 포괄하면 종합표제이고, 동일 저작의 서로 다른 표제형을 목록에서 한곳에 모으면 통일표제이다.

암기 포인트

종합표제는 여러 내용을 포괄하고, 통일표제는 동일 저작의 여러 이름을 통일한다.

NoteBase

13. 한국목록규칙 제4판 보유편에서 규정한 전자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디지털 형태로만 발행한 전자책
ㄴ. 텍스트가 주가 되지 않는 전자적 데이터
ㄷ. e-book 리더기, 컴퓨터 스마트폰, 기타 컴퓨터장치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사될 필요가 없는 텍스트
ㄹ. 오디오북, 동영상북 등 특정 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멀티미디어 형식의 전자책
ㅁ. 인쇄형태의 단행본을 디지털형태로 복제한 전자책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ㄱ, ㅁ
④ ㄴ, ㄹ, ㅁ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한국목록규칙 제4판 보유편이 규정한 전자책의 적용 대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텍스트 중심의 전자책과 단순 전자적 데이터·멀티미디어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전자책은 컴퓨터나 휴대용 전자장치를 통해 읽도록 만든 전자 형태의 단행본이다.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발행된 것뿐 아니라 인쇄 단행본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한 것도 포함한다.

핵심 구분

ㄱ은 디지털 형태로만 발행된 전자책이므로 대상에 포함된다. ㄴ의 텍스트가 추가되지 않은 전자적 데이터는 전자책의 대상이 아니다. ㄷ은 전자매체를 통해 영상될 필요가 '없는' 텍스트라고 하였으므로 제외된다. 올바르게는 전자매체를 통해 영상될 필요가 있는 텍스트이다. ㄹ의 오디오북·동영상북 등 특정 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멀티미디어 형식은 이 규칙에서 말하는 텍스트 중심 전자책의 대상이 아니다. ㅁ은 인쇄형태의 단행본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한 전자책이므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항목은 ㄱ과 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맞지만, 대상이 아닌 ㄴ과 ㄷ을 함께 포함하였다. 틀린 구성: ㄱ, ㄴ, ㄷ → 올바른 구성: ㄱ, ㅁ이다.
② X — ㄱ과 ㅁ은 맞지만, 특정 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멀티미디어 형식인 ㄹ을 포함하였다. 틀린 구성: ㄱ, ㄹ, ㅁ → 올바른 구성: ㄱ, ㅁ이다.
③ O — 디지털 형태로만 발행된 전자책인 ㄱ과 인쇄 단행본을 디지털로 복제한 전자책인 ㅁ을 정확히 묶었다.
④ X — 대상이 아닌 ㄴ과 ㄹ을 포함하고 대상인 ㄱ을 빠뜨렸다. 틀린 구성: ㄴ, ㄹ, ㅁ → 올바른 구성: ㄱ, ㅁ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전자 형식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모든 전자적 데이터와 멀티미디어 자료를 전자책에 포함시키기 쉽다. 특히 ㄷ의 ‘영상될 필요가 없는’이라는 부정 표현과 ㄹ의 오디오북·동영상북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내용이 단행본의 텍스트를 전자적으로 읽는 형태인지 확인한다. 처음부터 디지털로 발행했는지, 인쇄 단행본을 디지털로 복제했는지는 모두 포함 가능하지만, 텍스트 없는 데이터와 오디오·동영상 중심 멀티미디어는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전자책 대상은 ‘디지털 원발행 + 인쇄 단행본의 디지털 복제’이고, 텍스트 없는 데이터와 멀티미디어는 제외된다.

NoteBase

14. MODS를 적용하여 작성한 서지데이터 레코드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요소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titleinfo>
 <title>말하기독서법</title>
</titleinfo>
<name type="personal">
  <namePart>김소영</namePart>
</name>
<(㉠)>텍스트</(㉠)>
<origininfo>
   <place>파주</place>
   <publisher>다산북스</publisher>
   <dateIssued>2019</dateIssued>
</origininfo>
<(㉡)><extent>299p.; 21cm<extent></(㉡)>
```

① typeOfResources - physicalDescription
② typeOfResources - identifier
③ genre - accessCondition
④ recordInfo - physicalDescription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MODS에서 자료의 내용 유형을 나타내는 요소와 형태사항을 묶는 요소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typeOfResource>: 자원의 기본적인 내용 유형을 나타내며, 이 레코드의 'text'가 요소값이 된다.
<physicalDescription>: 자원의 물리적 형태사항을 묶는 상위 요소이며, 분량과 크기는 하위 요소 <extent>에 기술한다.
<identifier>: ISBN 등 자원을 식별하는 번호나 부호를 기술한다.
<genre>: 자원의 장르나 형식을 나타내고, <accessCondition>은 이용·접근 조건을 기술하며,
<recordInfo>는 MODS 레코드 자체의 작성·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담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text’는 자원의 내용 유형이므로 ㉠은 <typeOfResource>이고, 분량·크기를 나타내는 <extent>를 묶는 ㉡은 <physicalDescription>이다. 올바른 구조는 <typeOfResource>text</typeOfResource>와 <physicalDescription><extent>299p. ; 21cm</extent></physicalDescription>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을 <identifier>로 연결한 것이다. <identifier>는 ISBN 같은 식별자를 기술하는 요소이므로 <extent>의 상위 요소가 될 수 없다. 올바르게는 ㉠ <typeOfResource>, ㉡ <physicalDescription>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을 <genre>, ㉡을 <accessCondition>으로 연결한 것이다. <genre>는 장르·형식을, <accessCondition>은 이용·접근 조건을 나타내므로 ‘text’와 물리적 분량·크기의 자리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 <typeOfResource>, ㉡ <physicalDescription>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을 <recordInfo>로 연결한 것이다. <recordInfo>는 자료의 내용 유형이 아니라 레코드 자체에 관한 정보를 담는다. ㉡의 <physicalDescription>은 맞지만, 올바른 전체 연결은 ㉠ <typeOfResource>, ㉡ <physicalDescription>이다.

오답 포인트

<extent>가 분량을 뜻한다는 사실만 보고 ㉡의 상위 요소를 놓치기 쉽다. ‘299p. ; 21cm’은 식별번호나 접근조건이 아니라 물리적 형태사항이므로 <physicalDescription> 아래에 들어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요소값의 의미부터 확인한다. ‘text’처럼 내용 유형을 나타내면 <typeOfResource>, 쪽수·크기처럼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면 <physicalDescription> 아래의 <extent>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내용 유형은 typeOfResource, 분량·크기는 physicalDescription의 extent이다.

NoteBase

15. 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에서 채용한 구두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두점	명칭	용법
①	:	쌍점	표제관련정보 앞, 발행처 앞
②	;	쌍반점	기타형태사항 앞, 총서권호 앞
③	,	쉼표	역할이 동일한 책임표시 앞, 발행년 앞
④	=	등호	대등표제 앞, 총서의 대등표제 앞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ISBD에서 구두점 :, ;, ,, =가 각 서지요소 앞에서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쌍점(:)은 표제관련정보 및 발행처 앞에 쓰이며, 형태사항 영역에서는 기타형태사항 앞에 쓰인다. 쌍반점(;)은 서로 다른 역할의 후속 책임표시 또는 총서의 권호 앞에 쓰인다. 쉼표(,)는 역할이 동일한 책임표시를 잇거나 발행년 앞에 쓰인다. 등호(=)는 대등표제 앞에 쓰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쌍점(:)은 본표제에 이어지는 표제관련정보 앞과 발행지에 이어지는 발행처 앞에 사용한다.

② X — '기타형태사항 앞'이라는 용법이 틀렸다. 기타형태사항은 쌍반점(;)이 아니라 쌍점(:)을 앞세운다. 올바르게는 '쌍반점(;)은 총서권호 앞에 사용하고, 기타형태사항 앞에는 쌍점(:)을 사용한다'이다.

③ O — 쉼표(,)는 역할이 동일한 책임표시를 연결할 때와 발행년 앞에 사용한다.

④ O — 등호(=)는 본표제의 대등표제 앞과 총서표제의 대등표제 앞에 사용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총서권호 앞'이라는 맞는 용법과 '기타형태사항 앞'이라는 틀린 용법을 한 선지에 묶었다. 기타형태사항과 총서권호는 모두 뒤따르는 세부 요소처럼 보이지만, 전자는 쌍점(:), 후자는 쌍반점(;)으로 구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구두점의 모양만 외우지 않고 바로 뒤에 오는 서지요소를 확인한다. 표제관련정보·발행처·기타형태사항이면 쌍점(:), 총서권호이면 쌍반점(;), 대등표제이면 등호(=)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기타형태사항은 쌍점(:), 총서권호는 쌍반점(;), 대등표제는 등호(=)이다.

NoteBase

16.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에 따라 자료특성사항을 기술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디오 녹화자료
② 악보
③ 전자자료
④ 지도자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KCR 제4판에서 자료유형 고유의 특성을 자료특성사항에 기술하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료특성사항은 일반적인 서지사항만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자료유형 고유의 특성을 기술하는 영역이다. KCR 제4판에서는 지도자료의 축척·도법·좌표, 악보의 표현형식, 전자자료의 내용·크기 등을 이 영역에 기술하지만, 비디오 녹화자료에는 자료특성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비디오 녹화자료는 KCR 제4판에서 자료특성사항을 기술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비디오 녹화자료를 자료특성사항의 기술 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비디오 녹화자료의 매체적 특성은 형태사항이나 필요한 주기사항 등 해당 기술요소에 기록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② O — 악보는 총보·미니어처 스코어·파트보 등 악보의 표현형식을 자료특성사항에 기술하므로 대상에 해당한다.
③ O — 전자자료는 자료의 내용과 크기 같은 전자자료 고유 정보를 자료특성사항에 기술하므로 대상에 해당한다.
④ O — 지도자료는 축척, 도법, 좌표 등 지도자료 고유 정보를 자료특성사항에 기술하므로 대상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비디오 녹화자료도 비도서자료이므로 모든 비도서자료에 자료특성사항을 기술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료특성사항의 적용 여부는 비도서자료인지가 아니라 KCR 제4판이 그 자료유형에 고유 기술영역을 두었는지로 판단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자료유형에 별도의 고유 기술요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축척·도법·좌표는 지도자료, 악보의 표현형식은 악보, 내용·크기는 전자자료에 연결하고, 비디오 녹화자료는 자료특성사항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자료특성사항은 지도·악보·전자자료, 비디오는 제외로 기억한다.

NoteBase

17. KORMARC(통합서지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시기호의 첫 번째 숫자에 따라 0부터 9까지의 블록으로 나누어진다.
② 5로 시작되는 모든 표시기호는 주기사항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드다.
③ 지시기호는 가변길이필드내의 데이터요소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호다.
④ 식별기호는 표시기호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KORMARC 표시기호의 블록 구분과 지시기호·식별기호의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시기호: 각 필드의 내용과 기능을 나타내는 세 자리 숫자 부호이며, 첫 번째 숫자에 따라 0XX부터 9XX까지의 블록으로 구분된다.
지시기호: 가변길이 데이터필드에서 데이터의 해석이나 처리에 필요한 부가정보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식별기호: 가변길이필드 안의 데이터 요소인 서브필드를 식별하는 부호이며, 같은 식별기호라도 표시기호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표시기호는 첫 번째 숫자를 기준으로 0XX, 1XX, 2XX와 같이 0부터 9까지의 블록으로 나뉜다.
② O — 5XX 블록은 일반적으로 주기사항을 기술하는 필드로 사용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지시기호는 가변길이필드 내의 데이터 요소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이다. 지시기호는 해당 필드의 데이터 해석이나 처리에 필요한 부가정보를 나타내며, 가변길이필드 내의 데이터 요소는 식별기호인 서브필드 코드로 식별한다.
④ O — 식별기호의 의미는 그 식별기호가 사용되는 표시기호에 의해 정해지므로, 같은 식별기호라도 표시기호가 다르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지시기호와 식별기호의 기능을 서로 바꾸어 서술한 선지이다. '데이터 요소를 식별한다'는 표현은 지시기호가 아니라 식별기호에 해당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필드 전체의 성격은 표시기호, 필드의 해석·처리에 필요한 부가정보는 지시기호, 필드 안의 세부 데이터 요소 구분은 식별기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표시기호는 필드, 지시기호는 처리 정보, 식별기호는 서브필드를 나타낸다.

NoteBase

18. KORMARC(통합서지용)의 260필드에 해당하는 KCR4의 서지기술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발행 ② 총서
③ 판 ④ 형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KORMARC(통합서지용)의 260필드와 KCR4 서지기술사항의 대응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260필드는 자료의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등 발행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발행사항에 해당한다.
주요 대응은 250필드=판사항, 260필드=발행사항, 300필드=형태사항, 490필드=총서사항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발행: 260필드는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등의 발행 정보를 기록하므로 KCR4의 발행사항에 해당한다.
② X — 총서: 총서사항은 260필드가 아니라 490필드에 기록한다. 올바르게는 260필드는 발행사항에 해당한다.
③ X — 판: 판사항은 260필드가 아니라 250필드에 기록한다. 올바르게는 260필드는 발행사항에 해당한다.
④ X — 형태: 형태사항은 260필드가 아니라 300필드에 기록한다. 올바르게는 260필드는 발행사항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선지의 발행·총서·판·형태는 모두 실제 서지기술사항이므로 용어만 보고 고르면 혼동하기 쉽다. 핵심은 260이라는 필드 번호를 발행사항과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필드 번호를 보면 먼저 대표 대응을 떠올린다. 250은 판, 260은 발행, 300은 형태, 490은 총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250 판, 260 발행, 300 형태, 490 총서이다.

NoteBase

19. KORMARC(통합서지용) 개정판(2014)에서 주제명 부출표목필드로서 주제명표의 기반이 아닌 것은?

① 630 ② 648

③ 650 ④ 653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KORMARC(통합서지용)에서 통제된 주제명 부출표목 필드와 비통제색인어 필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제명 부출표목은 주제명표목을 접근점으로 제시하는 필드이다. 630은 통일표제, 648은 시대명, 650은 일반주제명을 주제명 부출표목으로 기술한다. 반면 653은 전거 통제를 전제로 한 주제명표목이 아니라 비통제색인어를 기술하는 필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630은 '주제명부출표목-통일표제' 필드이므로 주제명표목을 기반으로 하는 필드이다.
② O — 648은 '주제명부출표목-시대명' 필드이므로 시대를 나타내는 주제명표목을 접근점으로 삼는다.
③ O — 650은 '주제명부출표목-일반주제명' 필드이므로 일반주제명 표목을 기술한다.
④ X — 653을 주제명표목 기반의 필드로 보는 것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653은 '비통제색인어' 필드로서, 통제된 주제명표목이 아닌 색인어를 기술한다.

오답 포인트

630·648·650·653이 모두 6XX대 주제 접근 관련 필드라는 점 때문에 653도 주제명표목 필드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653의 핵심 표현은 '비통제'이며, 이것이 나머지 세 필드와 갈리는 지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태그 번호만 보지 않고 필드명을 함께 떠올린다. '주제명부출표목'이면 주제명표목 기반이고, '비통제색인어'이면 주제명표목 기반이 아니다.

암기 포인트

630 통일표제, 648 시대명, 650 일반주제명은 주제명 부출표목이고, 653은 비통제색인어이다.

NoteBase

20. 다음은 조선시대에 사부분류법을 채택한 목록류이다. 이 목록의 편찬 연대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ㄱ. 규장총목	ㄴ. 누판고
ㄷ. 제실도서목록	ㄹ. 해동문헌총록

① ㄱ-ㄴ-ㄷ-ㄹ
② ㄱ-ㄹ-ㄷ-ㄴ
③ ㄹ-ㄱ-ㄴ-ㄷ
④ ㄹ-ㄷ-ㄴ-ㄱ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선시대 사부분류법을 채택한 목록류를 편찬 연대가 이른 것부터 배열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ㄹ. 해동문헌총록(1637년) → ㄱ. 규장총목(1781년) → ㄴ. 누판고(1796년) → ㄷ. 제실도서목록(1909년)

왜 이 순서인가: 17세기의 해동문헌총록이 가장 앞서고, 정조 때에는 규장총목이 누판고보다 먼저 편찬되었으며, 대한제국기의 제실도서목록이 가장 늦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ㄴ-ㄷ-ㄹ은 가장 이른 해동문헌총록을 맨 뒤에 두었으므로 틀리다. 틀린 순서 'ㄱ-ㄴ-ㄷ-ㄹ'은 올바르게는 'ㄹ-ㄱ-ㄴ-ㄷ'이다.

② X — ㄱ-ㄹ-ㄷ-ㄴ은 1637년의 해동문헌총록을 1781년의 규장총목 뒤에 두고, 1909년의 제실도서목록을 1796년의 누판고보다 앞에 두었으므로 틀리다. 올바르게는 'ㄹ-ㄱ-ㄴ-ㄷ'이다.

③ O — 해동문헌총록(1637년), 규장총목(1781년), 누판고(1796년), 제실도서목록(1909년)의 편찬 연대가 이른 순서와 일치한다.

④ X — ㄹ-ㄴ-ㄱ-ㄷ은 첫 항목과 마지막 항목은 맞지만, 누판고(1796년)를 규장총목(1781년)보다 앞에 두었으므로 틀리다. 틀린 부분 'ㄴ-ㄱ'은 올바르게는 'ㄱ-ㄴ'이며, 전체 순서는 'ㄹ-ㄱ-ㄴ-ㄷ'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처럼 해동문헌총록과 제실도서목록의 위치만 맞춘 뒤 정조 대의 두 목록을 뒤바꾸기 쉽다. 규장총목은 1781년, 누판고는 1796년이므로 규장총목이 먼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시대가 뚜렷한 해동문헌총록(17세기)과 제실도서목록(대한제국기)을 양끝에 놓고, 정조 대의 규장총목(1781년)과 누판고(1796년)를 연도순으로 가운데에 배열한다.

암기 포인트

해(1637) → 규(1781) → 누(1796) → 제(1909), 즉 '해-규-누-제' 순서이다.

NoteBase

21. 다음은 KDC 6판의 문학형식 구분표이다. 이를 활용하여 현대(-61)의 한국문학(810)으로 볼 수 있는 「윤동주시집」의 분류번호로 가장 옳은 것은?

-1 시	-5 연설, 웅변
-2 희곡	-6 일기, 서간, 기행
-3 소설	-7 풍자 및 유머
-4 수필, 소품	-8 르포르타주 및 기타

① 810.1 ② 810.161
③ 811.61 ④ 816.1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한국문학의 기본 분류번호 810에 문학형식 구분번호와 시대구분번호를 올바른 순서와 자리에 합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기본 분류번호: 한국문학 810
문학형식: 시집이므로 표의 시 -1
시대: 현대이므로 문제에 제시된 -61

핵심 개념

문학 작품의 분류번호는 해당 문학의 기본 분류번호에 문학형식 구분을 먼저 반영하고, 그 뒤에 시대구분을 결합한다. 따라서 한국문학 810에 시의 형식구분 -1을 적용하면 811이 되고, 현대의 시대구분 -61을 이어 붙이면 811.61이 된다.

적용 기준

「윤동주 시집」은 한국문학이면서 문학형식이 시이고 시대가 현대이다. 그러므로 810 → 811 → 811.61의 순서로 분류번호를 합성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810.1은 시의 형식구분 -1을 810의 소수점 아래에 잘못 배치했고 현대의 시대구분 -61도 반영하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811.61이다.
② X — 810.161은 810을 그대로 둔 채 형식구분과 시대구분을 소수점 아래에 연속 배치한 번호이다. 시의 -1은 먼저 810에 반영하여 811로 만들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811.61이다.
③ O — 한국문학 810에 시의 형식구분 -1을 적용한 811에 현대의 시대구분 -61을 결합한 811.61이므로 옳다.
④ X — 816은 표에서 -6에 해당하는 일기·서간·기행의 번호이므로 시집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현대의 시대구분은 -61로 반영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811.61이다.

오답 포인트

문학형식 구분번호 -1과 시대구분번호 -61을 모두 소수점 뒤에 단순히 이어 붙이면 ②를 고르기 쉽다. 시의 -1은 먼저 기본번호 810에 반영하여 811을 만들고, 그 뒤에 현대의 -61을 결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본 문학번호를 정하고, 작품의 형식을 표에서 찾은 뒤, 형식구분을 반영한 번호에 시대구분을 결합한다. 이 문항에서는 810(한국문학) → 811(시) → 811.61(현대시)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한국 현대시는 810 + 시 -1 + 현대 -61 = 811.61이다.

NoteBase

22. 다음의 자료를 분류규정에 따라 분류 주제를 정할 때 가장 적절하게 선정한 것은?

ㄱ. 「현대사회와 정신위생」
ㄴ. 「수리경제학」

① ㄱ-정신위생, ㄴ-수리학
② ㄱ-정신위생, ㄴ-경제학
③ ㄱ-현대사회, ㄴ-수리학
④ ㄱ-현대사회, ㄴ-경제학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둘 이상의 주제가 결합된 자료에서 중심 주제와 다른 학문의 적용 대상을 판별하여 분류 주제를 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복합주제의 분류에서는 표제에 나온 단어를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료가 실제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를 선택한다. 다른 학문의 방법이 특정 학문에 적용된 경우에는 그 방법 자체보다 적용을 받는 학문에 분류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와 정신위생」은 현대사회를 배경으로 정신위생을 다루므로 정신위생에, 「수리경제학」은 수학적 방법을 경제학에 적용하므로 경제학에 분류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을 정신위생으로 정한 것은 맞지만, ㄴ을 수리학으로 정한 부분이 틀리다. 수학적 방법의 적용 대상이 경제학이므로 ㄴ은 경제학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ㄱ은 정신위생, ㄴ은 경제학으로 분류하므로 두 자료의 분류 주제를 모두 바르게 연결하였다.
③ X — ㄱ을 현대사회로, ㄴ을 수리학으로 정한 부분이 모두 틀리다. ㄱ은 정신위생, ㄴ은 경제학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ㄴ을 경제학으로 정한 것은 맞지만, ㄱ을 현대사회로 정한 부분이 틀리다. 현대사회는 다루는 배경이고 중심 주제는 정신위생이므로 ㄱ은 정신위생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표제의 앞부분이나 결합어의 첫 요소를 중심 주제로 착각하기 쉽다. 특히 「수리경제학」의 '수리'를 독립 주제로 보면 수리학을 고르게 되지만, 실제 분류 기준은 수학적 방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경제학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자료가 궁극적으로 설명하는 대상을 찾는다. 한 학문의 방법이나 관점이 다른 학문에 적용되었다면 '무엇을 이용했는가'보다 '무엇을 연구하는가'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 학문에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현대사회와 정신위생은 정신위생, 수리경제학은 경제학이다. 방법보다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분류한다.

NoteBase

23. 다음에서 기술적(descriptive)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DC	ㄴ. MARC
ㄷ. ONIX	ㄹ. PREMIS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기술적(descriptive) 메타데이터와 유통·보존 목적의 메타데이터 표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술 메타데이터는 자료의 제목, 저자, 주제 등 식별과 검색에 필요한 서지적 특성을 표현한다.
DC(Dublin Core)는 다양한 자원의 기술과 검색을 위한 기본 요소 집합이다.
MARC는 서지 정보를 기계가독형으로 표현하고 교환하는 형식으로, 기술 메타데이터에 해당한다.
ONIX는 출판·도서 유통 분야에서 상품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이다.
PREMIS는 디지털 객체의 장기 보존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보존 메타데이터 표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ㄱ DC와 ㄴ MARC는 모두 자료의 식별과 검색을 위한 기술 정보를 표현하므로 옳은 조합이다.
② X — 틀린 항목은 ㄷ ONIX이다. ONIX는 출판·유통 과정의 도서 상품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이며, 이 문항에서 묻는 기술 메타데이터에는 ㄱ DC와 ㄴ MARC가 해당한다.
③ X — 틀린 항목은 ㄹ PREMIS이다. PREMIS는 기술 메타데이터가 아니라 디지털 자원의 장기 보존을 지원하는 보존 메타데이터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DC와 ㄴ MARC이다.
④ X — 틀린 항목은 ㄷ ONIX와 ㄹ PREMIS이다. ONIX는 출판·유통용 상품 정보 교환 표준이고 PREMIS는 보존 메타데이터 표준이므로, 기술 메타데이터의 올바른 조합은 ㄱ DC와 ㄴ MARC이다.

오답 포인트

ONIX도 서명·저자·가격 같은 정보를 담고 있어 기술 메타데이터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표준이 주로 사용되는 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ONIX는 출판·유통, PREMIS는 보존, DC와 MARC는 자원의 기술·검색에 대응시킨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메타데이터 표준의 대표 목적을 먼저 확인한다. 자원의 식별·검색과 서지 기술이면 DC·MARC, 출판 상품 정보의 유통이면 ONIX, 디지털 장기 보존이면 PREMIS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술은 DC·MARC, 출판 유통은 ONIX, 디지털 보존은 PREMIS이다.

NoteBase

24. 브라운주제분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초판부터 제3판까지 발간되었으며 한때 영국 내 도서관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왔으나 1950년대 후반 이후는 사용도서관이 감소하고 있다.

② 기호법은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를 혼합한 혼합기호법이다.

③ 이 분류표에는 알파벳 소문자 2자를 조합한 연대기호표가 첨부되어 있다.

④ 다섯 개의 기본범주인 개체, 재료, 기능, 공간, 시간에 따라서 주제를 분석하는 분류법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브라운의 주제분류법이 지닌 판·사용 역사, 기호법, 보조표의 특징을 랑가나단의 콜론분류법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브라운의 주제분류법은 제임스 더프 브라운이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한 일반분류표이다.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쓰는 혼합기호법과 연대기호표가 특징이다.
랑가나단의 콜론분류법은 주제를 기본범주로 분석한 뒤 합성하는 분석합성식 분류법이며, 개체·재료·기능·공간·시간의 다섯 기본범주를 사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브라운의 주제분류법은 초판부터 제3판까지 발간되었고 영국 도서관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나, 1950년대 후반 이후에는 사용 도서관이 감소하였다.
② O — 주제분류법의 기호는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사용하는 혼합기호법이다.
③ O — 알파벳 소문자 두 글자를 조합하여 연대를 표시하는 연대기호표가 첨부되어 있다.
④ X — 틀린 부분은 '브라운의 주제분류법이 개체·재료·기능·공간·시간의 다섯 기본범주에 따라 주제를 분석한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이 다섯 기본범주로 주제를 분석·합성하는 분류법은 랑가나단의 콜론분류법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주제를 분석한다'는 표현 때문에 브라운의 주제분류법처럼 보이게 하지만, 개체·재료·기능·공간·시간이라는 다섯 기본범주는 콜론분류법을 가리키는 결정적 표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법의 설명에서 다섯 기본범주가 제시되면 먼저 랑가나단의 콜론분류법으로 판단한다. 브라운의 주제분류법은 3개 판,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의 혼합기호, 두 소문자 방식의 연대기호표를 연결하여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브라운은 혼합기호와 연대기호표, 다섯 기본범주는 랑가나단의 콜론분류법이다.

NoteBase

25. 한국십진분류법(제6판)을 기반으로 '제주도 방언'을 분류할 때, 분류기호로 가장 옳은 것은?

본 표	710	한국어
	710.1	이론
	710.109	국어학사
	718	방언(사투리) Dialect
	718.1-.9	각 지방의 방언 지역구분표 -111-1199와 같이 세분한다.
지역 구분표	-1	아시아 Asia
	-11	대한민국 Korea
	-111	관북지방
	-119	전라도
	-1199	제주특별자치도 Jeju-do

① 718.1199
② 718.199
③ 718.91199
④ 718.99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한국십진분류법에서 본표의 분류기호와 지역구분표의 기호를 지시된 방식대로 합성하여 제주도 방언의 분류기호를 만드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방언은 718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구분표 기호는 -1199이다.
구해야 할 값: 제주도 방언의 완성된 분류기호이다.
주의할 조건: 본표에는 718.1-.9를 지역구분표 -111~-1199와 같이 세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역구분표 기호의 공통 앞부분 -11은 분류기호에 반복하지 않고 그 뒤의 세부 숫자만 붙인다.

사용할 공식

분류기호 = 718 + '.' + 지역구분표 기호에서 공통 앞부분 -11을 제외한 숫자
이 규칙을 쓰는 이유는 본표가 718.1-.9의 세분에 지역구분표 -111~-1199를 사용하도록 직접 지시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구분표 기호 -1199를 확인한다.
2. 공통 앞부분 -11을 제외하면 제주도를 나타내는 세부 숫자는 99이다.
3. 이를 방언의 기본기호 718 뒤에 소수점과 함께 붙이면 718.99가 된다.

선지 판단

① X — 718.1199는 지역구분표 기호의 1199를 전부 붙인 값이므로 공통 앞부분 11을 중복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718.99이다.
② X — 718.199는 지역구분표 기호에서 앞의 1만 제외한 값이다. 공통 앞부분 11을 모두 제외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718.99이다.
③ X — 718.91199는 718 뒤에 9를 먼저 붙인 다음 지역구분표 기호 1199까지 다시 붙여 기호를 중복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718.99이다.
④ O — -1199에서 공통 앞부분 -11을 제외한 99를 718 뒤에 붙인 718.99가 제주도 방언의 올바른
분류기호이다.

오답 포인트

지역구분표의 -1199를 그대로 덧붙이거나 앞자리 하나만 생략하면 ①이나 ②가 된다. 핵심은 본표의 전개 범위 718.1-.9와 대응하도록 지역구분표의 공통 앞부분 -11을 제외하는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본표에 지역구분표의 특정 범위를 이용해 세분한다는 지시가 있으면, 먼저 대상 지역의 기호를 찾고 본표에 이미 반영된 공통 앞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만 기본기호 뒤에 붙인다.

암기 포인트

제주도 -1199에서 공통 -11을 빼면 99, 따라서 제주도 방언은 718.99이다.

NoteBase